

##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황창순\*\*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정도를 알아보고 학년별, 성별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차이를 탐구하였다.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이 애착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를 선택하는 예측변인을 밝히려고 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297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애착 정도는 후기 아동에서 초기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낮아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또래애착 정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초기 청소년은 후기 아동에 비해 애착의 세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보다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애착의 기능을 위해 또래선택을 예측하는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년과 성은 애착의 세 가지 기능 가운데 근접추구 기능과 편안함 추구 기능에서는 주요 예측변인이었으나 안전기저 기능에서는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다.

주제어 : 부모애착, 또래애착, 애착의 변화

\* 본 논문은 2004년도 순천향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의하여 연구하였음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I. 서론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의 발달이 필요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애착의 형성이다(Bowlby, 1982). 애착의 기원과 형성과정에서 인간의 사회성 발달의 관점에서 주로 탐구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애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결과가 많이 축적되었다. 애착이론은 최근에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를 넘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성인의 애정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로서도 활용되고 있다(Ainsworth, 1989).

우리나라의 옛말에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동기가 끝나고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와 친밀한 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적이지만,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중학생이 되는 등의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으로는 반항심과 독립성이 강해지고 동성친구가 청소년의 일상적 삶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증대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점차 그들의 또래로부터 지지와 애착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며 청소년의 인간관계에서 우정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Collins & Repinski, 1994).

이러한 또래애착의 증대는 청소년들의 지지적인 우정의 형성으로 극대화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지지적인 우정은 장차 오랫동안 이어질 친밀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 청소년들은 우정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친밀성을 경험하게 된다(Nickerson & Nagle, 2005). 청소년들의 지지적인 우정은 무조건적인 부모의 지지와는 다른 종류의 애착으로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생애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는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에 주목하고, 특히 사춘기 초입에 나타나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정도와 애착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애착이론을 검토하고, 애착이론의 틀에서 청소년

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특성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1. 애착이론

#### 1) 애착이론의 기원과 형성배경

애착이론은 볼비와 애인스워스에 의해 발달하였고 이후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볼비는 주로 동물행동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개념을 기반으로 애착이론의 기본원리를 확립하였다(Parkes, 2004). 볼비는 유아가 그들의 주 보호자와 형성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서적 유대를 애착(attachment)이라고 명명하였다(Bowlby, 1982). 볼비의 3권으로 된 애착, 분리, 그리고 상실에 대한 연구(1969/1982, 1973, 1980)는 애정적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약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볼비는 이 책에서, 비록 애착행동이 일생동안 모든 인간의 행동에서 발견되지만, 특히 영아가 일차적인 양육자와 감정적으로 애착되고 또 그들로부터 분리될 때 어떻게 슬퍼하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지만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고(Ainsworth, 1989)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Kirkpatrick & Davis, 1994; Hazan & Shaver, 1987). 이제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는 이원적인 애정적 유대관계로 정의된다(장휘숙, 1997a).

#### 2) 애착행동의 구성요소

부모와 자녀사이의 유대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발달이론인 애착이론에 의하면 애착행동은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볼비(Bowlby, 1982)는 근접추구

(proximity seeking)와 분리저항(separation protest)을 포함하는 근접유지(proximity maintenance), 안락함이나 지지를 위해 기대는 편안한 천국(safe heaven), 그리고 비 애착행동에 열중하기 위해 기지로 사용되는 안전기지(secure base)를 애착행동의 3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근접추구는 접근하기, 가까이 머물기, 애착대상과 접촉하기를 포함하는데, 애착인물이 감정적 지지를 위해 추구되는 정도와 애착된 대상의 감정적인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편안한 천국 기능은 위협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안락함, 지지, 그리고 재확인(reassurance)을 위해 애착인물에게 기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기지 기능은 탐구를 시작할 때 하나의 기반으로 애착된 인물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신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Cassidy, 1999).

## 2. 애착과 인간발달의 다른 측면과의 관계

애착관계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다른 측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 분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애착양식(안정된 애착, 회피적 애착, 불안한/양가적 애착)과 다른 심리사회적 복지와의 연관성을 밝힌다.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안전한 애착패턴의 역사를 가진 어린이는 불안하게 애착된 어린이에 비해 더 능력있고, 감정적으로 건강하며, 자기 확신이 강하고,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과 성인의 애착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가 모든 가까운 관계의 모델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Ainsworth, 1989; Hazan & Shaver, 1987; 1994). 개인의 애착유형은 청소년의 또래관계나 이성관계와 관련이 있고 애착의 안전성(attachment security)은 사회적 효능감이나 개인 사이의 기능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Allen & Land, 1999; Blank & McCartney, 1997).

청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안전한 애착은 감정적 기능, 사회적 효능감, 자율과 애착의 부드러운 조화,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Cotterell, 1992; Rice, 1990). 나아가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는 애착행동의 차이는 사회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데 불안정하게 애착된 개인들은 더 많은 개인간 어려

움을 가진다는 것이다(Crowell, Fraley, & Shaver, 1999).

국내에서는 장휘숙의 연구가 애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장휘숙(1997a)은 우선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의 특성을 뛰어 넘어 애착의 전 생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장휘숙(1997b)은 또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회피적 애착양식을 가진 집단이 가장 큰 부적응적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해에 발표된 또 다른 논문(장휘숙, 1997c)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중고생 및 대학생 집단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불일치할 때, 친구에 대한 애착이 부모애착의 불일치 효과를 보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휘숙의 이어지는 논문(1998)에서는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을 연구했는데 특히 자아상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한편 옥정(1997)의 연구는 청소년기의 부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을 따로 측정하였는데, 부의 애착과 모의 애착에서는 학년차가, 그리고 또래애착의 안정성에서는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애착의 변화에 대한 논문은 전무하다. 다만 애착의 세대간 대물림을 연구한 결과(장휘숙, 1997a)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가 제기하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의 애착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애착대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청소년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유대를 넘어 애착이론의 지평을 확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애정적 관계를 애착과정으로 개념화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이다. 이들은 후속연구(Hazan & Shaver, 1994)에서 애착이론을 더욱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해서 가까운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영아기와 아동기 동안에는 어머니가 일차적인 애착인물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애착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관련이 깊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 이르면 또래가 부모 못지않게 친밀감

의 원천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애착이론가들은 가까운 또래가 감정적인 지지위계의 정점에서 부모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Ainsworth, 1989; Bowlby, 1969/1982).

부모와 또래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Hazan과 그녀의 동료들(Hazan et al., 1991, Freeman & Brown 2001에서 재인용)은 5-19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또래애착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애착의 세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근접추구 기능과 분리저항 기능에서 75%의 청소년들이 또래를 부모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안전기저 기능에 대해서는 부모가 또래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부모를 애착인물로 포기하는 과정은 청소년 초기에 시작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에 이르면 거의 완성된다는 것이다.

애착관계에서의 성차이: 부모와 친구를 대상으로 친밀성을 연구한 결과는 일관되게 성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남자청소년이나 여자청소년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많이 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arson et al., 1996; Youniss & Smollar, 1985). 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청소년기 동안 아버지에게 친밀감을 덜 느끼는데 반해,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나 이성 친구를 더욱 친밀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애착연구는 친밀성 연구와는 다르게 성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insworth, 1991; Hazan & Shaver, 1994). 단지 후기 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애착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는 점 정도가 예외적이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Savin-Williams와 Berndt(1990)가 지적하듯이, 또래는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관심을 위한 친밀함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부모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덕적, 개인적 이슈에서 친밀한 대상이 된다. 말하자면 또래가 청소년 시기에 자주 친밀함의 대상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삶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애착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경우 부모가 더욱 빈번히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 4. 애착관계의 위계에서 또래 등장 of 예측요인

기존의 이론은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관계를 가진 개인은 이 관계를 다른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안전기저로 사용할 것이며, 나이가 자아, 타인, 그리고 성공으로 이

끄는 안전한 관계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제안한다(Bowlby 1982; Hazan & Shaver, 1994). 여기서 내적작동모델이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이다(장휘숙, 1997b).

물론 내적작동모델에 관한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와 친구사이의 관계는 각각 독특하며, 부모와 불완전한 애착관계를 가진 몇몇 청소년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는 불완전하게 애착된 청소년들은 조기에 사랑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애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Freeman과 Brown(2001)에 의하면 안전한 부모애착관계를 가진 아동의 90%이상이 부모를 일차적인 애착대상으로 인식한 반면,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가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또래를 일차적인 애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문헌검토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 관계를 연구할 때 나이가 중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애착관계의 위계에 친구가 언제 도입되는가를 검토할 때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흔히 지적되는 것은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친밀감과 자신의 비밀을 더 많이 털어놓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차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를 연구할 때 잠재적인 성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의 애착관계의 위계에서 또래친구가 도입될 가능성을 탐색할 때 부모와의 애착정도, 친구와의 애착정도, 그리고 청소년의 나이와 성(sex)이 중요한 잠재적 예측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5. 본 연구의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애착이론을 준거틀로 하여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관계를 고찰한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 학년들은 각각 늦은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집단 사이에서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에 대한 두 가지의 척도가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와 애착관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은 아무리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일차적인 애착대상'을 가짐으로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동의 일차적인 애착인물의 역할을 충족하지만 청소년기의 상황은 아동기와는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 주변의 주요 인물들이 애착대상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고, 특히 애착대상으로 친구가 도입되는 예측변인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학년과 성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이나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본다. 둘째, 아동 후기와 청소년 초기에 걸쳐서 애착의 구성요소가 부모에서 또래로 변한다는 Hazan과 Shaver(1987)의 모델과 이를 미국의 사례에 적용해서 검증한 Nickerson과 Nagle(2005)의 모델을 한국의 청소년에게 적용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학년과 성, 그리고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정도가 애착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나 또래를 선택하는 것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평가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연구대상이 된 참여자는 297명의 아동과 청소년으로서 남자 158명(53.2%), 여자 139명(46.8%)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서울의 동일 교육구청 관할의 1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경기도의 동일 교육청 관할의 1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선정되었다. 표본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3개 반, 6학년에서 3개 반,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서 3개 반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선정방식은 우선 서울시 교육구청 가운데 무작위로 하나의 교육구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교육구청에서 1개 중학교와 1개 초등학교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1개의 중학교와 1개의 초등학교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표본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우선 교장선생과 접촉한 다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교장선생에게서 설문조사의 허락을 받은 다음,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질문지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다음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3개 학년에서 모두 297명의 표본이 선정되었는데, 최종적인 표본은 초등학교 4학년 97명(평균나이=9.88; 표준편차=.32), 6학년 96명(평균나이=11.83; 표준편차=.40), 중학교 2학년 104명(평균나이=13.89; 표준편차=.39)이다.

## 2. 척 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특히 후기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발달심리학의 애착연구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척도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와 애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 1) 애착척도: people in my life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많은 학자들이 사용했지만 아직도 이론적 개념에 가장 적절한 척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eople in my life를 애착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ook, Greenberg, 그리고 Kusche(1995)가 원래 개발한 76개 항목의 애착척도를 Duke대학 중심의 Fastrack 프로젝트에서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30개 항목으로 줄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Gifford-Smith, 2000). 본 도구는 원래의 측정도구에서 학교나 이웃과 관계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부모 및 또래 관계에 관한 항목도 몇 가지를 줄인 최초의 people in my life 척도의 축소판이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11세 전후의 초기 청소년의 애착개념에 가장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Gifford-Smith, 2000), 척도의 신뢰도는 부모애착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81, 또

래애착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83이었다.

## 2) 애착의 변화 척도: The WHOTO.

애착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인 'The WHOTO' 척도는 Fraley와 Davis(1997)가 사용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Fraley와 Davis(1997)는 WHOTO에 대한 개정판을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기능이 변화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관계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근접추구, 편안한 친국, 안전기저)를 평가하는데 응답자의 인생에서 각각의 기능에 가장 잘 기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애착의 세 가지 구성요소 각각에 대해 두 문항씩 평가하며 전체 여섯 문항이 된다. 본 척도는 애착의 세가지 기능 가운데 근접추구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이 가장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와 “당신이 가장 헤어져 있기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응답자에게 질문한다. 편안한 친국 기능에 대해서는 “당신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처져있을 때 가장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와 “당신이 조언을 듣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듣기 위해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기저 기능에 대해서는 “당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나 자랑스러운 일을 달성했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와 “당신이 언제라도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질문한다. 각 문항은 부모가 선택되면 0점, 또래가 선택되면 1점이 주어진다. 연구대상자들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가장 친한 친구, 이성친구, 또는 기타 다른 사람 가운데 애착의 기능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학년과 성에 따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년별, 성별 집단간 부모애착 점수와 또래애착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1>은 4점 척도로 측정된 학년별

부모애착 점수와 또래애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 부모애착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2>에 나타나듯이 부모애착 총점에서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 $p < .01$ )가 나타났다. 사후검사 결과(Tukey HSD)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아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표 1> 학년별, 성별 부모애착 점수 및 또래애착 점수

변 수	4학년		6학년		중2학년		남자		여자	
	M	SD								
부모애착점수	3.28	.51	3.23	.45	2.87	.57	3.05	.53	3.19	.55
또래애착점수	2.99	.59	3.08	.52	3.13	.47	2.93	.53	3.24	.48

<표 2> 학년에 따른 부모애착 점수의 일원변량분석

	제 곱 합	자 유 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95	2	4.98	18.50	.00
집단내	77.71	289	.26		
전 체	87.66	291			

하지만 아래의 <표 3>이 보여주듯이 학년에 따른 또래애착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애착 점수가 높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점수는 아래의 <표 4>에 나타나듯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p < .05$ ),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1$ ).

<표 3> 학년에 따른 또래애착 점수의 일원변량분석

	제 급 합	자 유 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8	2	.49	1.72	.18
집단내	81.48	287	.28		
전 체	82.45	289			

<표 4> 성별에 따른 부모 및 또래애착 점수의 평균의 차이검증

	집단평균	t	자 유 도	유의확률
부모애착	남 3.05	-2.18	290	.03
	여 3.19			
또래애착	남 2.93	-5.04	288	.00
	여 3.23			

## 2. 학년별 애착기능의 대상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대상이 변하는 것에 관해서 Hazan과 Shaver(1987)가 제안하고 Nickerson과 Nagle(2005)이 검증한 모델을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적용시키기 위해 WHOTO 척도의 모든 항목에 대한 전체응답자의 대답을 계산하였다. 우선 부모나 친구가 애착의 구성요소 전 항목에서 조부모나 애인, 그리고 형제자매 보다 빈번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근접추구, 편안한 친국, 그리고 안전기저 각각의 기능에 따라 부모나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우선 안전기저 기능을 위해서는 두 문항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부모를 선정하는 비율이 친구를 포함해서 다른 대상을 선정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하지만 근접추구 기능과 편안한 친국 기능에 대해서는 부모를 선택하는 비율과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달랐다. 근접추구 기능 가운데 ‘떨어져 있고 싶지 않는 사람’을 묻는 문항에서는 부모를 선택한 비율이 안전기저에서처럼 높은 데 반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친구를 선택한 비율(42.9%)이 부모를 선택한 비율(38.4%)보다 약간 높았다. 편안한 친국의 기능을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분이 다운된 경우에 같이 있고 싶은 대상’으로는 친구가 부모보다 많이 선택되었으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대상’은 부모가 친구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학년에 따라 애착기능의 대상을 부모나 친구를 선택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나 친구를 선택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6개의 문항에 대하여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근접추구 요소는 두 항목 모두에서( $\chi^2=22.52$ ,  $p<.01$ ;  $\chi^2=26.11$ ,  $p<.01$ ) 유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학년은 편안한 친국 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인 “화가 나거나 기분이 다운 되었을 때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유의미했고( $\chi^2=54.91$ ,  $p<.01$ ), 두 번째 항목인 “조언을 듣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듣기 위해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에서도 역시 유의미했다( $\chi^2=5.73$ ,  $p<.01$ ). 말하자면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친구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애착의 안전기저 기능을 평가하는 두 항목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안전기저 항목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안전기저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 $\chi^2=7.59$ ,  $p<.05$ )가 발견되었다.

한편, 애착기능의 충족대상 선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했는데,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6가지 애착 기능 항목 가운데 안전기저 기능을 측정하는 첫 번째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친구보다 부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9.14$ ,  $p<.01$ ).

### 3. 애착기능 충족을 위한 또래선택의 예측요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구에게 의존하는가를 예측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해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 성, 그리고 부모 애착 정도와 또래애착 정도를 예측변수로 선정하였다. 애착의 변화를 측정하는 6개의 항목에 대해 6가지의 분리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응답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각 애착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를 선택했는가(0으로 코딩) 또는 친구를 선택했는가(1로 코딩)에 따라 나누어서 범주화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친구 선택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모든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모델이 참여자가 애착기능의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나 또래를 선택한 자료와 일치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기준변수에 대한 각 예측변수의 영향력을 평

가하기 위해 오즈값(odds ratio)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오즈값은 예측변인의 한 단위 변화 당 애착욕구를 충족시킴에서 또래를 지적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아래의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애착욕구 가운데 근접추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와 또래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예측하였다. 학년, 성별, 부모애착점수, 또래애착점수 가운데 부모나 또래와의 애착 정도가 근접추구의 일차적인 대상으로서 또래를 선택할 참여자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말하자면 부모에게 덜 애착된 청소년일수록 또래에게 기댈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또래에게 많이 애착된 어린이가 또래에게 기댈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근접추구 기능을 예측하는 두 모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년은 <표 5>와 <표 6>이 보여주듯이 두 가지 모델에서 공히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다. 성별도 근접추구 기능에 대해서 친구를 선택하는데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다.

<표 5> “당신이 가장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근접추구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chi^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88	25.82**	1	.15
친구애착점수	.74	5.12*	1	2.09
학년		1.19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15	.19	1	1.15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32	1.03	1	1.37
성별	-.16	.29	1	.85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 \*\* $p<.01$

<표 6> “당신이 가장 헤어져 있기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근접추구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chi^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98	25.**	1	.14
친구애착점수	1.42	9.37*	1	4.14
학년		4.09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55	.92	1	1.74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77	3.72	1	2.16
성별	-.17	.18	1	.84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 \*\* $p<.01$

아래의 <표 7>과 <표 8>은 애착의 구성 요소 가운데 편안한 친국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모델은 약간 차등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애착의 정도는 여전히 친구선택의 강력한 예측치이지만, 친구애착의 정도는 부모애착의 그것에 비해 예측의 강도가 현저히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편안한 친국 기능 모델을 평가하는 <표 7>에서는 학년이 친구를 선택하는 유의미한 예측치인데, 특히 중학교 2학년은 편안한 친국의 기능을 위해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4.28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예측치가 아니었다. 성별의 영향은 모델에 따라서 차등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모델(표 7)에서는 성별이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으나, 두 번째 모델(표 8)에서는 성별이 유의미한 예측치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2.43배 높게 친구를 선택하였다.

<표 7> “당신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처져있을 때 가장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편안한 친국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chi^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24	12.49**	1	.29
친구애착점수	.85	7.12*	1	2.34
학년		19.20**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40	1.39	1	1.50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1.46	18.27**	1	4.29
성별	.20	.41	1	1.22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표 8> “당신이 조언을 듣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듣기 위해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편안한 친국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chi^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2.01	27.31**	1	.13
친구애착점수	.65	2.87	1	1.90
학년		2.59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63	1.64	1	1.89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44	1.44	1	1.56
성별	.89	5.77*	1	2.43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애착요인 가운데 안전기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변인은 다음의 <표 9>와 <표 10>에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평가한 애착의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부모애착 점수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의미한 예측치였다. 하지만 친구애착의 효과는 모델에 따라서 차등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친구애착이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지만, 두 번째 모델에서는 친구애착 점수가 유의미한 예측치였다. <표 10>에서 나타났듯이 친구애착 점수 1단위가 변화함에 따라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4배 높았다. 앞의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학년은 안전기저 기능을 수행하는 애착대상 선택을 예측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별은 두 모델에서 차등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안전기저 기능을 평가하는 모델(표 9)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적었지만, 두 번째 모델(표 10)에서는 성별은 유의미한 예측치가 아니었다.

<표 9> “당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나 자랑스러운 일을 달성했을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안전기저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chi^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06	8.99**	1	.35
친구애착점수	.17	.22	1	1.18
학년		.11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01	.00	1	.99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13	.11	1	1.14
성별	-1.13	8.10**	1	.32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표 10> “당신이 언제라도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로 측정된 안전기저 애착기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

예 측 변 인	Beta	Wald $\chi^2$	자유도(df)	오즈값(odds ratio)
부모애착점수	-1.98	23.18**	1	.14
친구애착점수	1.40	10.07**	1	4.04
학년		.68	2	
학년(4학년대비 6학년)	-.41	.67	1	.66
학년(4학년대비 중1학년)	.02	.00	1	1.02
성별	.15	.14	1	1.16

부모=0, 친구=1로 코딩; 남자=0, 여자=1로 코딩; \* p<.05, \*\*p<.01

## V. 논의 및 결론

### 1.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살펴보고, 후기 아동에서 초기 청소년으로 성장 발달함에 따라 애착욕구의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탐구하였다. 특히 다양한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또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며, 애착기능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수를 밝히려 하였다.

People in my life 척도로 측정된 부모애착 점수의 경우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세 집단을 비교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사이에는 부모애착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는 부모애착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애착이 청소년 초기에 들어서면서 약간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부모 이외의 애착대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증대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애착의 정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여학생들의 애착 평균점수가 남자학생들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의 애착점수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친구의 애착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나 친구에게 더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애착관계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었다. 애착관계의 변화는 다양한 애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댈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애착관계의 변화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초기 청소년이 후기 아동에 비해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6가지 종류의 전 척도에서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애착의 근접추구 기능에서 후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청소년은 부모

보다는 친구를 더 빈번히 선택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근접추구 기능 항목에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부모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이 문항에서도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의 친구 선택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여전히 4배 이상 높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초기의 친구관계에서 애착요소가 도입되는 시기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연구(Hazan & Zeifman 1994; Nickerson & Nagle 2005)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 애착기능 항목인 편안한 천국 기능에서도 학년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청소년이 후기 아동보다 더욱 빈번히 친구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편안한 천국 기능을 측정하는 두 문항 사이에는 약간 상이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항목에서 초기 청소년은 친구를 압도적으로 선택하는데 반해(71%), 후기 아동들은 친구보다는(29%) 부모를 더 빈번히(54%) 선택하였다. 하지만 ‘조언을 듣기 위해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함께 부모를 더 빈번히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삶에서 부모와 친구의 역할이 차지하는 고유한 영역이 따로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말하자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공감은 또래에게서 추구하지만 삶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조언을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애착의 안전기저 기능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계없이 거의 75% 가까운 비율로 부모를 언제라도 의지할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의 안전기저 기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일치하며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Nickerson and Nagle, 200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선 초기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애착대상을 부모에서 친구로 변환시키고 다양화시키는 경향을 더욱 빈번히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애착의 구성요소 가운데 근접추구 기능이나 편안한 천국 기능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안전기저 기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부모가 제공하는 안전기저로서의 기능은 일생동안 유지될 수도 있으며, 성인이 되어 애인이나 배우자가 생기면 약간 변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제공하는 안전기저 기능은 인간에게 언제나 강력한 애정적 유대로 남아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 2. 애착관계에서 친구의 출현을 예측하는 변인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살펴본 본 연구의 발견과 논의는 청소년기에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등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친구선택을 예측하는 변인을 추정하는 회귀 분석모델은 특정한 애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를 선택할 예측변인의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우선 학력과 성별의 예측력은 애착기능의 종류별로 차등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학년은 기술통계의 결과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근접추구 기능과 편안한 천국 기능에서는 주요한 예측변인이었고 성별도 편안한 천국 기능과 일부 안전기저 기능에서 주요한 예측변인이었다.

애착관계에서 친구의 도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은 쉽게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이다. 애착구성 요소의 전 기능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불완전한 청소년이 애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애착관계에서 친구선택을 예측하는 예측력이 두 번째로 강한 변수는 친구에 대한 애착정도이다. 애착기능에 따라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친구를 애착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함축성으로는, 우선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정도가 초기 청소년기의 애착대상으로 또래가 등장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모와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진 아동이,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가 바탕이 된 내적작동모델의 도움으로, 다른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성발달을 위해서도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 갈수록 애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래로 향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며,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의 일부기능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애착의 안전기저 기능의 경우 또래로부터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 비추어,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상담할 경우 애착의 기능별로 부모 및 또래애착을 활용하는데 차등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3.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

본 논문은 제기한 연구문제를 밝히는 데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척도의 문제인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척도이기는 하지만, 이론적 개념구성을 가장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척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애착이론에서 논의된 개념구성에 가장 적절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며, 특히 애착의 다양한 차원과 구성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는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애착변화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애착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 그리고 같은 기능을 측정하는 두 문항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반응이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애착기능은 부모가, 또 다른 종류의 애착기능은 친구가 충족시킬 수 있다지만, 이런 경우 Freeman과 Brown(2001)도 지적하듯이, 애착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애착의 세 가지 기능은 애착이라는 동일한 조직체계의 보완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위반되는 문제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애착기능의 변화를 측정하는 The WHOTO 척도가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척도의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후속연구에서는 애착유형별로 또래애착의 등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고려해야만 하고, 다른 애착연구(옥정, 1997)에서 이미 활용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을 따로 구분해서 애착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단적 연구 설계를 채택한다면 애착정도 및 애착변화의 인과성을 더욱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옥 정(1997).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1997a).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pp. 80~97.
- 장휘숙(1997b).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제2호, pp. 323~341.
- 장휘숙(1997c). 청년기의 애착과 자이즌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제4권 제1호, pp. 88~106.
- 장휘숙(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 110~121.
- 한국심리학회(편)(1997).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pp. 709~716.
- Ainsworth, M. D. S.(1991). Attachments and other affectional bonds across the life cycl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and P. Mo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 33~51), New York: Tavistock/Routledge.
- Allen, J. P., & Land, D.(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Cassidy, J. and Shaver, P. 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319~335).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pp. 427~454.
- Black, K. A., & McCartney, K.(1997). Adolescent females' security with parents predicts the quality of peer interactions, *Social Development*, 6, pp. 91~110.
- Bowlby, J.(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Cassidy, J.(1999). The Nature of the child's ties. In Cassidy, J. and Shaver, P. 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3~20).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Collins, W. A., & Repinski, D. J.(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In R. Montemeyer, G. R. Adams, and T. P. Gullotta(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pp. 7~36). Thousand Oaks, CA: Sage.
- Cook, E. T., Greenberg, M. T., and Kusche, C. A.(1995). People in my life: Attachment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diana.
- Cotterell, J. L.(1992). The Relation of attachments and support to adolescent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pp. 28~42.
- Crowell, J. A., Fraley, R. C., & Shaver, P. R.(1999).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olescent and adult attachment. In Cassidy, J. and Shaver, P. 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434~465).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raley, R. C. and Davis, K. E.(1997).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in young adults' close friendships and romantic friend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pp. 131~144.
- Freeman, Harry, and Brown, B. Bradford,(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 Adolescence*, 30(6), pp. 653~674.
- Gifford-Smith, M.(2000). People in My Life. Technical Report. [on-line] Available:  
<http://www.fasttrackproject.org>
- Hazan, C. and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pp. 511~524.
- Hazan, C and Shaver, P.(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1), pp. 1~22.
- Hazan, C. and Zeifman.(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and D. Per;man(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pp.151~177). London: Jessica Kingsley.
- Hunter, F. T. and Youniss, J.(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pp. 806~811.
- Kirkpatrick, L. A. & Davis, K. E.,(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pp. 502~512.
- Larson, R. Richard, M., Moneta, G., Holmbeck, G., and Duckett, E.(1996). Changes in adolescents'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s 10 to 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pp. 744~754.
- Nickerson, Amanda B. and Nagle, Richard J(2005).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pp. 223~249.
- Parke, Ross D. 외(편)(2004). 발달심리학 거장들의 핵심이론 연구. 서울: 학지사.
- Rice, K. G.(1990). Attachment in adolescent: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pp. 511~538.
- Savin-Williams, R., and Berndt, T. J.(1990).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Feldman, S., and Elliot, G.(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277~307).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Williams, Susan K., F. Donald Kelly(2005). Relationships among involvement,

attachment,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ce: examining father's influ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pp. 168-196.

Youniss, J. and Smollar, J.(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 father, and friend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ABSTRACT

###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Transition of Attachment Functions

Hwang, Chang-Soon\*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degre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among age- and sex-specific groups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ddition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predicting the selection of peer to satisfy the attachment functions. A sample of 297 fourth, six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 completed two measures assessing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Parent and peer attachment, age and sex predicted the selection of peer to satisfy the various attachment functions. Students who had less parental attachment and more peer attachment were more likely to select peers to fulfill attachment functions. However, grades and sex had produced mixed results in predicting the selection of peer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transition of attachment.

투고일 : 4월 26일, 심사일 : 6월 3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

---

\* Soonchunhyang University

